

## “ 숨은 제자들 ”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는 이름은 신자인데 숨어서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밤에 남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 왔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자기 믿음을 표출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믿되 숨어서 믿는 자들이었다. 니고데모는 예수 공생애 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으로 고백했으나, 공개적으로 예수를 찾아 나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 왔고, 우리 주님이 정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침묵만 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 했으나 그는 아무 항의를 하지 않고, 그날 이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때를 놓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다 도망친 상태에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과감하게 예수의 시체를 장례할 터이니 시체를 달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담대함처럼 보이나 실상은 12제자의 실패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죄 많은 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은 봉사와 헌금을 바치듯이 이들은 신행일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죽은 시체를 장례하겠다 함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유대인들예겐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했고, 로마인에겐 시체로 인해 민란이 일어나는 염려가 있을 때, 이들이 나타났으니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고, 예수께도 덜 미안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숨은 제자들처럼 그들은 주님 위해 일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는 허망함과 조소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년 전 UN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투표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기권을 한 적이 있다. 불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다가올 심판 날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습관적 · 직업적 신앙인이었다. 타종교의 도덕성과 야합한 혼합주의자요 세속화되어 불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한 자요 교회 문화와 신앙 생활에서 단절된 자 즉 이름만 가진 신자(Nominalist)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끌어내었다. 기회를 놓친 겁이 많은 아리마대 요셉도 막상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고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의 머리되심이 거부되며, 그의 몸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도 입을 열어 그를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요셉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장례라도 해야겠다고 나섰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인내가 그를 끌어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 대신 털 깎는 자 앞의 양과 같이 잠잠히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땅도 하늘도 죽음도 성전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을 버렸다. 결국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었다. 요셉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시체를 달라 할 이유가 없다. 원수들이 멀리 가 위험은 사라졌다. 그리스도 편에 설 제자들도 모두 도망쳤다. 부자유 권세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례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깝다. 지금은 당신이 일어나야 할 때다. 나는 아리마대에 살지 않고 이 시대에 빌라도도 없지만 내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라. 당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위해 당신은 죽을 준비되었는가? 영광 받으신 주님께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아와야 한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주님 앞에서 도적질한 죄를 회개할 줄 알면서,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숨은 제자 되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부활 절기에 나아오라 일어나라 대담하게 주님께 오라 왕의 왕, 주의 주 그분께만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영광을 돌리자!

-한국장로신문 [제 1499호] 2016년 4월 2일 발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올해 마지막 12월의 첫째 주일이고 동시에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본당 2,3,4층 전체를 개방합니다  
예배당에 입장하신 후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교회 정규예배 외의 주일 교회학교의 부서별 예배를 모두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고 찬양대도 축소 운영합니다

### ※ 주차장 이용 안내

내일부터 차량번호 미등록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지상에 주차하신 후 추후 사무국에서 등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위해 지하층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하므로 동승한 가족분들은 가능한 주차장 입구에서 모두 하차하셔서 1층 현관 정문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주차 후, 지하 1층 계단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교인증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 ※ 방역 및 교인 확인 절차

기준과 같이 1층 현관 앞에서 발열 체크 후 교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발급받은 QR 교인증을 확인하여 저장하여 두시면, 교회 입장 시 인증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b>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b>	<b>서울교회QR코드</b> 
	<b>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b>	
	<b>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b>	

<b>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b>		
<b>전도사</b> 박미라	<b>교육전도사</b> 김은숙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남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기, 수바스, 알로롱, 비니수쁘도, 보디소프, 린롱, 수린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양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

### ■ 고전 4:18-21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비로서 그들을 염려하고 돌아보는 목사의 심정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리더로 지처하고 나선 자들이 사도가 올 것 같지 않다면서 왜 자신들을 따라야 할지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사도는 그들이 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 1. 말보다 행함으로 존중받자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자들은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을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더 따르거나, 아볼로나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그 말에서 영의 양식을 받아먹으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닮아가게 하는 자여 합니다. 말씀을 맡은 중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임무를 맡은 자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귀중한 은사를 가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위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3:3) 위선자들은 입으로 좋은 말은 다하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일에는 뒤로 쏙 빠지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뽐내는 기회의 자리에는 부지런히 등장하면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현장은 외면하거나 침묵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교훈과 가르침을 신뢰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첫째는 그 가르침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강론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가르침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신앙인이 되는 열매들을 맺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며, 선생들은 특별히 말하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2.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가 아닌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무성한 곳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땅과 백성과 주권자가 있는 공간적 의미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통치권에 거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 생명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살전 1:5).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설득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심령의 변화를 결코 일으키지 못합니다.

### 맺는 말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이로운 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보다는 행동이 낫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며 사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알고 내적 변화를 통한 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여 경건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장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대상 16:28-2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6(구주강림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105(10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5: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죄와 권징”...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268(20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사 62:10-11 ..... 인 도 자  
 찬 송 ..... 351(389) ..... 다 함 께  
 기 도 ..... 감혜언 집사  
 성 경 ..... 수 10:1-15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여호와” ... 설 교 자  
 \* 찬 송 ..... 353(391)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I부: 장호림 권사 II부: 하 숙 권사  
 성 경 ..... 고전 7:30-3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순례자의 라이프스타일: 절도(節度)와 인내”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전 5:8)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701호
수 요 예 배	I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정기당회 / 12월9일(수) 오후 8시 402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5.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6.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7. 609호 부서 모임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8. 701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 장 례

1. 故 이옥란 권사(5교구 이영주 권사의 모친, 임선철 집사의 장모) / 12월1일(화) 별세, 4일(금)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81명	389명	1,870명	394명	1,152명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1/2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29일	헌 금	35,594,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870,000
	찬양운영비		8,080,000
	교회학교운영비		676,900
	선 교 비		100,000
	행 사 비		97,000
	출 판 비		1,390,000
	인 건 비		6,072,000
	복리후생비		3,483,690
	통 신 비		270,700
	수도광열비		6,658,210
	차량유지비		580,500
	도서인쇄비		525,000
	소모품비		657,610
	환경유지비		496,200
	수선유지비		9,997,800
	식당운영비		454,540
	합 계	35,594,000	121,361,150

##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후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